

# 17세기 어느 校奴婢 일가의 奴婢訟을 통해 본 몇 가지 사회상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奴婢訟의 전개 양상
  - 1. 노비송의 개요
  - 2. 1650~1655년 노비송의 전말
  - 3. 1692년 노비송의 전말
- III. 奴婢訟을 통해 본 17세기 校奴婢 운영과 訓練都監 京砲手
  - 1. 풍기향교의 교노비 운영
  - 2. 훈련도감 투숙 문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7세기 어느 校奴婢 일가와 경상도 豊基鄕校 儒生 간에 전개된 奴婢訟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회상을 살펴 본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는 校婢 注叱分의 자손들이었다. 조선시대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주질분의 자손들은 풍기향교의 교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이들은 邑吏와 결탁해 良人으로 冒錄하였다. 나아가 訓練都監 京砲手 및 步兵과 같은 양인의 軍役에 投屬하거나, 사대부 가문의 孽族 또는 奴良妻所生을 칭하면서 교노비에서 이탈하고자 했다. 그러나

---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ikw38@ynu.ac.kr

결국 풍기향교 유생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교노비는 향교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향교 운영과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였다. 아울러 향교는 교육기관이자 사족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향촌사회기구였다. 이에 풍기향교 유생들은 소송을 통해 주질분 일가의 교노비 이탈을 차단함으로써, 향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족 중심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풍기향교 유생들이 소송 과정에서 가장 주안을 두었던 것은 주질분의 아들로 훈련도감 경포수로 入屬해 버린 後種의 환속이었다. 만약 후종이 훈련도감을 매개로 遞兒職 등의 군직을 받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 일가의 연쇄 이탈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 주제어

校奴婢, 豐基鄕校, 訓練都監, 奴婢訟, 奴婢從母法

## I. 머리말

우리는 한국사에서 중세사회의 해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조선후기 사족 계층의 증가와 분화,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노비 해방 등 복잡다기하게 전개된 사회 구조의 변동 양상을 주목해 왔다. 이러한 변동 양상으로 인해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중세사회는 해체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후기 점진적으로 진행된 노비의 감소와 해방은 良賤制를 골자로 삼고 있는 한국 중세사회의 신분제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사 또는 법제사적 측면에서 노비제를 접근하거나 帳籍·量案 분석을 통해 사회 구조 변화를 밝혀 왔다. 나아가 관찬 사료뿐만 아니라 고문서 자료를 파악하고 노비소유주가 아닌 노비 입장에서 그들의 존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노비제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해 나갔다.<sup>1)</sup> 그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의식 성장이 이루어진 노비들이 免賤·贖良 등의 합법적 수단과 도망 및 신분 冒稱 등의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거나 표출하였는데, 그것이 곧 중세사회의 해체 과정으로 해석되었다.<sup>2)</sup>

그러나 최근 노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분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비의 신분 상승 시도 및 이탈 행위의 원인을 봉건 통치의 저항과 그들의 의식 성장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이다.<sup>3)</sup> 이러한 노비의 움직임을 단순히 지배층 대 피지배층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대신, 그간 다방면으로 수집된 노비 관련 고문서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사회를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sup>4)</sup>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노비의 신분 상승 및 이탈에 대

1) 전형택,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4~5쪽.

2) 전형택,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1996년 가을호, 1996, 325~330쪽.

3) 전경목,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전북사학』 40, 2012, 105쪽.

4) 한효정, 「소송을 통해 본 17세기 노비횡탈 양상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 ‘안심(安心)’ 자녀 소송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7, 2013, 391쪽.

하여 ‘생존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며, 당시 노비의 입장을 시대상에 맞추어 보다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주목된다.<sup>5)</sup> 조선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 상층부를 구성했던 사족층의 존재 양상이 다양했던 만큼, 노비의 존재 양상과 대응도 매우 다양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입증해 주는 사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7세기 豊基郷校의 校奴婢 注叱分 일가의 존재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 시기 풍기향교 유생들은 소송을 통해 주질분이 향교의 校婢였음을 주장하며, 교노비에서의 이탈을 시도하는 그녀의 자손들에 대한 還屬을 청원하였다. 반면, 주질분의 자손들은 그녀가 良女 또는 私婢였음을 주장하며 교노비에서의 이탈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주질분의 아들이 訓練都監 京砲手 入屬을 통해 노비 신분을 이탈하려 했다는 점과 그간 진행된 奴婢訟 관련 사례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노비 일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決訟立案이나, 당시 주질분 일가의 가계와 기본 인적 사항을 보여주는 戶籍 자료와 같은 1차 자료는 전하는 것이 전혀 없다. 다만,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1641~1681년 『雜錄』과 1692~1720년 『郷校雜錄』 第二에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공문이 謄書되어 있거나 관련 사실이 요약되어 있으며,<sup>6)</sup> 훈련도감의 소관 업무를 일지 형태로 기록해 놓은 『訓局謄

5) 전경목, 「조선후기 노비의 속량과 생존전략」, 『남도민속연구』 26, 2013; 이해정,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1578년 노비결송입안(奴婢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2015.

6) 1641~1681년 『雜錄』에서는 1650년 2월~1655년 10월 기사, 1692~1720년 『郷校雜錄』 第二에서는 1692년 기사에서 소송 내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성책 자료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II),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의 613~617쪽과 628~629쪽에 각각 영인되어 있다. 그런데 『잡록』과 『향교잡록』 제2에 등서되어 있는 공문과 기사들은 특정한 양식 없이 연도별로 엮여져 있을 뿐, 별도의 편명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하 각주에서는 영인본[『경북향교자료집성』 (II)]의 책명은 생략하고, 해당 내용이 수록된 쪽수와 성책 제목만 기재하였다.

錄』에도 관련 내용이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어,<sup>7)</sup> 소송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sup>8)</sup>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풍기향교 유생과 주질분 일가 간의 소송 과정을 통해 여기서 드러나는 노비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풍기향교 교노비의 운영 실태 및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훈련도감의 일면을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奴婢訟의 전개 양상

### 1. 노비송의 개요

1692년(숙종 18) 4월 27일 慶尙道 興海郡에 거주하며 스스로 武學이라 일컫는 李泰榮이라는 자가 黑天翼을 입고 弓矢를 휴대한 채 慶德宮 안으로 들어와 擊鎗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태영은 증조부의 婢妾子孫들이 지금 풍기향교의 교노비가 되었다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하였다.<sup>9)</sup> 당시 이태영이 언급한 증조부의 비첩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전후 풍기군에서 전개된 노비송의 내용을 볼 때 주질분이나, 그녀의 딸 또는 손녀로 추정된다. 즉, 이태영은 그녀가 자기 집

7)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모두 4종의 『훈국등록』이 전하고 있다. 여기서 활용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91책의 『훈국등록』이다. 이 자료에는 1628년(인조 6)부터 1881년(고종 17)까지의 훈련도감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질분 관련 소송은 1653~1654년의 기록인 제3책에서 확인된다. 한편, ‘심재우, 『訓局謄錄』 인조~영조 대 上言에 대한 연구,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06~107쪽’에는 이 노비송과 관련하여 주질분의 아들 後種이 올린 상언의 의미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8) 본 논문에서 활용한 풍기향교 자료의 원문은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훈국등록』의 원문은 ‘장서각 기록유산DB(<http://visualjoseon.aks.ac.kr>)’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9) 『承政院日記』 348책, 숙종 18년 4월 27일.

안의 비첩인 관계로 그녀의 자손들도 私奴婢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질분과 관련된 소송은 1692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1650년(효종 1) 2월 풍기향교 유생들은 주질분의 아들 후종이 奴婢從母法에 의거해 校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書員과 결탁하여 호적에 良人으로 冒錄한데다가 나아가 훈련도감 경포수로 托屬했다며, 그에 대한 환속을 청원하는 上書를 올린 것이 이 소송의 시작이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발단은 1648년(인조 26) 후종이 훈련도감 경포수가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풍기향교 유생들이 1650년부터 풍기군·慶尙監營·훈련도감 등에 呈文하여 후종과 그 일족에 대한 환속을 청원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1653년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고 경포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代定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후종은 풍기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잠적해 버려, 풍기향교 유생들은 1655년까지 그에 대한 捉致를 요구하고 나머지 일족을 추심하였다. 이후 소송은 끝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1692년 이태영과 그의 孽族들이 이번에는 주질분의 신분이 사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부는 풍기향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주질분 관련 노비송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이상의 소송 일지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소송 일지<sup>10)</sup>

1648.	후종이 훈련도감 경포수로 입속
1650. 2	풍기군의 進士 金是直 등이 경상감사에게 상서하여 후종의 환속 청원
1650. 9	豐基郡守가 경상감사에게 牒呈을 올려 후종을 경포수에서 頗下시키고, 훈련도감에 粘移하여 다른 사람으로 代定하자고 건의
1651. 2. 23.	閑良 姜得勢 <sup>11)</sup> 를 후종의 代定人으로 정해 경상감사에게 보고

10) 『승정원일기』 348책, 숙종 18년 4월 27일; 『훈국등록』 3책; 『잡록』, 613~617쪽; 『향교잡록』 제2 628~629쪽.

17세기 어느 校奴婢 일가의 奴婢訟을 통해 본 몇 가지 사회상(이광우)

1653. 8	훈련도감 軍案에서 후종을 탈하
1653. 8	경상감사가 풍기향교 유생들의 정문에 의거해, 良籍에 후종을 모록한 관련자들을 刑推하라고 지시
1653. 9. 4	후종이 상언을 올려 억울하게 교노로 입속되었음을 호소
1653. 11. 25	풍기군수가 풍기향교 유생들의 정문에 의거하여, 후종의 議送이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보고
1654. 1. 2	나타나지 않는 후종을 대신 해 그의 아버지 允金を 관아에 투옥
1654. 2. 4	본 소송에 대한 결송입안을 成貼해서 풍기향교에 보관
1654. 7. 25	풍기군수가 幼學 安世亨 등의 상서에 의거해 경상감사에게 報狀을 올려 한양에 머무르며 내려오지 않는 후종의 捉送을 건의
1655. 3	풍기향교 유생 南駿慶 등이 경상감사에게 상서하여, 步兵으로 입속되어 있는 후종의 조카 一難에 대한 군적 탈하와 교노 환속을 청원
1655. 8	兵曹에서 일난의 군적 탈하를 지시
1655. 10	풍기향교 유생들이 경상감사에게 상서를 올려 자신을 奴良妻所生이라고 주장하며 의송을 올린 一今의 아들 權是任을 규탄
1692. 2	天祥 등이 흥해 사람 이태영과 결탁해 의송을 올려 억울하게 교노가 되었음을 호소
1692. 4. 27	이태영이 풍기향교 교노비의 일로 경덕궁에서 격쟁
1692. 10	이태영의 아들 李仲伯이 상언을 올려 주질분이 자기 집안의 사비였음을 주장하자, 順興府使가 관련 자료를 조사
1692. 11	경상감사가 천상 등을 풍기향교로 決給한 후 관련자는 推治하라고 판결

위와 같이 소송이 전개되는 동안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주질분의 신분이었다. ‘일천척천’과 ‘노비종모법’의 원칙에 따라, 당시 주질분 자손들의 신분과 소유권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지속적으로 주질분이 교비라고 주장한 데 반해, 1650~1655년 후종과 그 일족은 주

11) ‘妾得世’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질분을 양녀라고 하였으며, 1692년 이태영·李仲伯 부자는 그녀가 사비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시기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질분의 신분이 바뀌고 가계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신분과 가계의 차이는 그녀의 자손들이 교노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1650~1655년 노비송의 전말

주질분 관련 소송은 1650년 2월 풍기의 進士 金是直 등이 경상감사에게 상서를 올림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래의 상서를 올려 훈련도감 경포수로 입속한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였다.

무릇 주질분은 교비로서 후종은 곧 주질분의 아들이니, 그 어머니가 교비이면 그 아들도 교노가 되는 것이 진실로 분명하며, 이에 모자가 향교에 服役해야 함에도 ... 바로 후종의 누이가 裴崇의 부인이니, 배송은 百姓으로서 항상 형제가 교노인 것을 싫어하여 밤낮으로 ... 지난 임오년[1642], 을유년[1645], 무자년[1648] 등 삼년 마다 호적을 작성할 때 [배]송은 本面の 戶籍書員이 되어 주질분을 양녀로 만들고, 후종은 閑丁으로 만들어 모략하였으며, 무자년 歲抄 때에는 후종을 教誘해 邑吏에게 뇌물을 바친 후 자원하여 경포수로 托屬한 것으로 말미암아 上京 立番하게 되었습니다. ... 후종과 그의 동생 자매의 자녀는 거의 10여인에 이르지만, 주질분이 양녀가 되고 후종이 경포수가 되었으니, 그 族類가 모두 양인이 되어 弊校가 잃는 바가 어찌 한 명의 婢와 한 명의 奴에 그치겠습니까? ... 逐年戶籍에는 모두 교비·교노로 懸錄되어 왔지만, 오직 三年帳籍에는 양녀와 校屬으로써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모두 배송이 서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어서 그가 술수를 사용했음이 明若觀火하며, ... 巡使께서 배송이 교비를 양녀로 삼은 죄를 무겁게 다스리고, 뒤이어 후종을 代身하여 改定하라는 특명을 내리셔서 殘廢한 향교로 還推하여, 이 잃어버린 노비로써 聖廟를 扶護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야말로 ...<sup>12)</sup>

---

12) 『잡록』, 613쪽.



위의 상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질분 모자는 원래 교노비로써, 매년 작성되는 호적에는 신분이 바르게 기재되어 왔으나, 주질분의 사위이자 후종의 매부가 되는 호적서원 배송이 3년 마다 작성되는 호적에다가 주질분은 양녀, 후종은 한정으로 모략함으로써, 이들이 교노비에서 몰래 벗어났다는 것이다. 둘째, 노비역에서 벗어난 후종이 배송의 사주로 읍리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도감 경포수가 되어 한 양으로 상경했다는 것이며, 셋째, 이로 말미암아 주질분의 자녀와 손자 등 10여 명이 풍기향교 교노비에서 벗어나 장차 향교가 잔폐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호적을 조작한 배송에 대한 처벌이며, 다섯째는 훈련도감 후종을 교노로 환속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다. 이때 상서에서 밝힌 배송의 호적 조작 사실과 풍기향교 유생들의 요구 사항 등은 이어 진 청원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상서가 올라가자 곧바로 경상감사는 풍기군수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풍기군수는 호적 자료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경요년[1630] 식년 장적에 주질분은 교비, 계유년[1633]·병자년[1636]·기묘년[1639] 식년 장적에 후종은 교노로 각각 입적된 사실과 김시직 등의 주장대로 과연 임신년[1642]<sup>13)</sup>부터 주질분은 양녀, 후종은 양인인 교속으로 현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4)</sup> 나아가 풍기군수는 후종 등이 교노의 役을 圖免하고자 良役에 投入한 것으로 확신하고, 훈련도감에 粘移하여 그를 훈련도감 경포수에서 탈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첩정을 올렸으며, 경상감사는 본도에서 처벌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sup>15)</sup>

1650년 경상감사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후종의 환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651년 2월 23일 후종이 맡고 있던 훈련도감 경포수의 代定人으로 당시 無役者였던 한량 강득세가 선정되어 경상감사에게 보고되었지만, 후종을 훈련도감 군적에서 탈하시키고 대정인 강득세를

13) 본문에는 ‘壬午’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壬申’의 오키로 보인다.

14) 『잡록』, 613쪽.

15) 『잡록』, 613~614쪽.

상경시켜 哨에 편제시킨 것은 1653년 8월의 일이었다.<sup>16)</sup> 당초 풍기군에서 후종을 경포수로 충정하여 훈련도감으로 보낼 때 양인의 자격으로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풍기군과 유생들의 청원을 훈련도감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7)</sup> 한편, 후종이 군적에서 탈하될 무렵 경상감사는 풍기향교 유생들이 올린 呈狀에 의거하여, 叛奴 가운데 首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친 엄한 刑推를 지시하였다.<sup>18)</sup> 당시 반노의 수괴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후종의 부모 또는 형제 및 인척으로서, 그의 양인 모욕과 경포수 充定을 지원했던 인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후종의 가족들이 처벌받고 강득세가 새로운 훈련도감 경포수가 되자, 후종은 1653년 9월 4일 아래와 같은 상언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자신의 일가를 교노비라고 주장하는 풍기향교 유생들을 규탄하였다.

경상도 풍기 거주 포수 臣 崔後種<sup>19)</sup> … 신의 부모 내외 諸族은 모두 양인의 역을 진 사람들로 榮川에서 태어나 임진왜란으로 풍기에 流寓하게 되었는데, 문득 향교 근처에 빈 곳이 있어 거주할 만한 곳이거늘 이로 인하여 造幕하고 居生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보병에서 老除되어 女孫 宋一難으로 代定될 때, (송일난이) 바야흐로 보병으로 응하였는데 향교 재임과 교생 등이 … 신과 신의 세 누이를 교비로 奪入하려는 계략으로 首奴와 同心하여 신을 몰래 暗錄할 줄은 천만 뜻밖이었으나, 그 奸謀에 까마득하여 평범하게 세월을 보낼 무렵 본관에서 신을 戊子式年 [1648]에 경포수로 충정하였는바, 당초 본관에서는 반드시 양인으로써 공초를 받은 연후에 [저를] 올려 보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奸巧한 校生들이 한갓 한 담만 일삼다가 향교를 빙자하여 모의를 해서, 신이 교노였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몰래 경중에 이르러 훈련도감을 속이고, 신을 교노로 만들었으니 … 대개 신은 먼 지방의 사람으로 6~7년 從軍하여 연습해서 재능을 성취하고 輦下의 병사가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간교한 교생의 誣說로써 교노로 被定되고 말았습니다

16) 『잡록』, 614쪽.

17) 『훈국등록』 3책, 기사 9월 일.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기사에는 후종의 상언에 대한 훈련도감의 啓目이 수록되어 있다.

18) 『잡록』, 614쪽.

19) 풍기향교 자료에는 ‘후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훈국등록』에는 ‘崔’라는 성씨가 노출되어 있다.

다. 軍政은 ‘金石之典’으로 얼마나 막중합니까?20)

우선 후종은 상언을 통해 자신의 가족은 榮川郡 출신으로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풍기향교 인근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또 자신의 아버지는 원래 보병의 역을 지고 있었는데, 老除 후 그 역이 조카에게 세습될 무렵 풍기향교 측이 향교 首奴와 결탁하여 자신과 누이들을 교노비로 暗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풍기향교 측이 간교를 부려 훈련도감 경포수인 자신을 교노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軍政의 중요함을 감안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마디로 ‘壓良爲賤’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후종의 청원은 곧 묵살되었다. 이에 앞서 훈련도감 측은 후종이 교노였다는 내용의 풍기군 첩정을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청원이 지속되자 漢城府에 소장된 장적을 살펴보게 되었고, 과연 己卯帖[1639] 내에 ‘步兵 崔允金 妻 注叱分 率子 後種’이 분명 교노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또 후종이 연로한데 반해, 강득세는 연소하고 장건하기 때문에 그를 경포수로 대신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啓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sup>21)</sup> 다급해진 후종은 1653년 10월 이번에는 경상감사에게 의송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오히려 이 의송이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풍기군수에게 적발 당하게 된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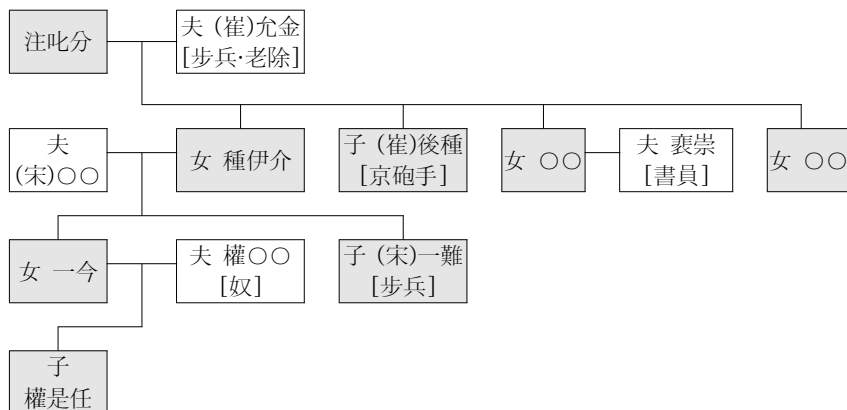
주질분 모자의 신분이 교노비로 확정되자, 풍기향교 유생들은 그 후속 조치로 후종을 비롯한 이른바 ‘叛奴’들의 처벌과 주질분 일가에 대한 推尋을 청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전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주질분 일가의 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0) 『훈국등록』 3책, 기사 9월 초4일.

21) 『훈국등록』 3책, 기사 9월 일.

22) 『잡록』, 614쪽.

〈표 2〉 주질분 일가의 가계<sup>23)</sup>



\* [ ]는 소송 직전의 職役, 음영은 풍기향교의 승소로 교노비가 되는 범위

앞서 진사 김시직 등은 상서를 올려 후종 형제와 그들의 자녀가 거의 10여 인에 이른다고 하였다.<sup>24)</sup> 이를 감안한다면 〈표 2〉에서 자녀를 확인하지 못한 주질분의 큰 딸인 種伊介의 동생들도 자녀와 손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면천되지 못했다면 모두 ‘一賤則賤’과 ‘노비종모법’에 의거하여 교노비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환속은 쉽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도록 상경한 후종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1654년 1월 2일 풍기향교 측은 돌아오지 않는 후종의 定罪를 청원하였으며, 풍기군수는 후종의 現身을 독촉하기 위해 그

23) 『훈국등록』 3책; 『잡록』, 613~617쪽. 후종은 훈련도감에 올린 상언에서 자신에게 세 명의 누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잡록』 수록 풍기향교 유생 남준경 등의 상서에 대한 경상감사의 題音에 따르면, 種伊介가 주질분의 1소생, 후종이 2소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배송은 후종의 두 여동생 중 한 명과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시직 등이 올린 상서에 “배송은 百姓으로서 항상 형제가 교노인 것을 싫어하여”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인인 배송의 부인은 면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4) 『잡록』, 613쪽.

의 아버지 윤금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sup>25)</sup> 당시 풍기향교 측은 향교를 배신하고 상언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을 비방한 후종만큼은 엄하게 처벌하여 다른 교노비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654년 7월 25일 풍기의 幼學 安世亨 등이 올린 상서에 잘 드러난다. 당시 안세형 등은 80세가 넘는 아버지가 장기간 옥에 갇히어 추위와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양에 머문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후종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그의 族屬들이 계속 풍기향교에 順服하지 않는 이유가 모두 후종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6)</sup> 후종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 족속들이 언젠가는 재차 교노비 이탈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후종이 과연 現身했는지, 아니면 계속 한양 등의 他地에 머물며 교노비의 신분에서 이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안세형 등은 상서를 통해 후종의 捉送을 청원하였고, 이 상서에 의거해 풍기군수는 경상감영에 報狀을 올렸다. 여기서 풍기군수는 해당 사실을 法曹[刑曹]에 粘移한 후 후종을 押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상서가 올라간 지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이 되어서야 경상감영은 該曹[형조]에 이 사안을 稟報하여 후종의 거주지를 알아보겠다고 짚막하게 題音을 내리는데,<sup>27)</sup> 이것이 후종의 행방과 관련된 마지막 기사이기 때문이다. 후종 입장에서는 現身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한편, 후종의 처벌과는 별개로 풍기향교 유생들은 교노비에서 이탈되어 있던 주질분의 자손들을 추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654년 2월 4일 본 소송의 決訟立案을 발급 받아 향교에 보관하였으며,<sup>28)</sup> 이를 근거로 1655년 교노비에서 이탈해 있던 일난<sup>29)</sup>과 권시임을 추심하였다. <표

25) 『잡록』, 614쪽. 윤금을 가둔 다음날 풍기 지역 사람들은 후종의 처벌이 끝나는 대로 그의 의송을 사주하고 도와준 자들에 대한 적발을 完議하였다.

26) 『잡록』, 614~615쪽

27) 『잡록』, 615쪽.

28) 위와 동일.

29) 『잡록』에는 성씨 없이 ‘一難’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 본 후종의 상언에는

2>에서처럼 일난은 주길분의 큰 딸인 종이개의 아들이자 후종의 조카이다. 앞서 후종의 상언에 따르면 일난은 老除한 외조부 윤금의 직역을 세습하여 보병이 되었다고 했지만,<sup>30)</sup> 풍기향교 유생들은 일난 역시 후종과 마찬가지로 교노비에서 이탈을 위해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풍기향교 소장 『잡록』에는 일난의 추심과 관련해 1655년 3월 풍기향교 유생 남준경 등이 慶尙道兵馬節度使에게 올린 상서와 같은 해 8월 병조에 올린 정문의 草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풍기향교 측은 후종이 훈련도감 경포수로 모욕했다가 교노로 환속된 경위와 그간에 내려진 관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일난의 추심을 청원하고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교노 후종이 향교를 배반할 계락을 몰래 품고, 그 조카 일난으로 하여금 色吏와 符同하여 軍簿에 몰래 投屬함으로써 모반을 모의하였는데, 향교의 역을 伏從하면서 또 그 代定은 遷延歲月하다가 지난 무자[1648] 연간 후종이란 자가 또한 연이어 경포수의 역에 투속하여 상경 입변한 후로부터 비로소 그 전후 모반한 정황을 깨닫게 되어 … 일난은 곧 후종의 동생 누이의 1소생이나, 일난의 군역은 아직까지 減除되지 않았으니 士林의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某의 간절함을 밝게 살피시어 특별히 이것의 代定을 허락하셔서 향교를 배반하는 간사한 모략을 막아주시면, 한 고을의 殘廢한 學宮에 더 없는 다행일 것입니다.<sup>31)</sup>

앞서 1650년 진사 김시직 등이 올린 상서에는 1642~1648년 동안의 식년장적에 이전까지 교노였던 후종이 한정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였다.<sup>32)</sup>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무리 당시 호적서원이 후종의 매제이자 일난의 이모부인 배승이라 할지라도, 최소 8년 동안 풍기군에 거주하고 있던 후종이 어떻게 버젓이 양인으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

---

宋氏임이 나타나 있다.

30) 『훈국등록』 3책, 기사 9월 초4일.

31) 『잡록』, 617쪽.

32) 『잡록』, 613쪽.

으며, 왜 풍기향교는 이를 장기간 방치해 두었다가 1650년이 되어서야 소송을 시작했냐는 것이다. 이 의문점은 1655년 위의 상서에서 풀린다. 상서에 따르면 후종과 그 조카 일난은 배승으로 추정되는 색리와 부동하여 軍簿에 투속하였고, 그러면서도 향교 역에 복종했다고 한다. 군부에 이름을 올리고서도 이전처럼 향교의 역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관부와 향교가 모두 문제 삼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교노를 ‘代定’하겠다고 풍기향교 측에 약속하였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代定’을 미루다 후종이 훈련도감 경포수로 충청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버리니, 뒤늦게 풍기향교 유생들은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1650년이 되어서야 소송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1653년 후종의 환속이 결정되자, 풍기향교 측은 1655년 일난의 추심을 청원하였다. 그 결과 경상도병마절도사와 병조는 일난을 군안에서 탈하시킨 후, 보병 자리에 다른 사람을 代定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sup>33)</sup>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후종과 일난은 인척 관계를 활용한 색리와 의 결탁뿐만 아니라, 군액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관부와 인척·물적 자원의 유지를 원하는 향교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활용하여, 교노비에서 이탈하려는 전략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일난이 추심되는 사이, 이번에는 榮川郡에 거주하는 그의 생질 권시임이 의송을 올려 교노비에서 이탈을 시도하였다. <표 2>에서처럼 권시임의 어머니는 종이개의 딸이자, 일난의 누나인 일금이다. 그런데 권시임의 아버지는 추정하건대 권씨 성을 가진 奴로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일천즉천’의 원칙과 노비종모법에 의거해 권시임은 교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1655년 권시임의 의송 건은 이에 대응하여 그해 10월 8일 풍기향교 유생들이 경상감사에게 제출한 상서에서 간략히 확인 할 수 있다. 이 상서에 따르면 이때 권시임은 교노비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자신을 ‘奴良妻所生’이라 칭탁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대해 풍기향교 측은 후종과 일난

33) 『잡록』, 616~617쪽.

의 판례를 들며, 권시임의 주장을 ‘非理好訟之弊’라고 일축하였다.<sup>34)</sup>

‘노양처소생’, 즉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이 성립되려면 권시임의 어머니인 일금이 良女여야 되는데, 이미 후종과 일난의 소송을 통해 주질분의 자손들은 모두 교노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권시임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 무엇보다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소송이 일어난 시기보다 뒤인 1669년(현종 10)부터이다. 국가의 양인 확보와 군액 증액을 위해 조선전기부터 이 법이 정부에서 논의된 적은 있었으나, 17세기 중반까지는 從父法이 적용되고 있었다.<sup>35)</sup> 따라서 권시임의 호소는 애당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 외가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게 됨으로써 교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비법제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했던 권시임의 절박한 생존전략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3. 1692년 노비송의 전말

1692년 주질분과 관련된 노비송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1692년 풍기향교에 대응하여 소송을 일으킨 당사자는 주질분의 자손이 아니라, 신분상 중간층 이상이라 볼 수 있는 武學·士子였다. 거기다 이들은 1650~1655년의 소송 당사자들과 달리, 그녀를 양녀가 아니라 사비라고 주장하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소송을 전개시켰다.

이 소송은 풍기향교 소장 『향교잡록』 제2에 수록된 1692년 2월 기사에서 처음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흥해군에 거주하는 이태영이라는 자가 ‘叛奴’의 일로써 먼저 경상감사에게 의송을 올렸고, 이에 대응하여 1692년 2월 풍기향교 都有司 黃璫 등 200인이 풍기군수에게 정문했다고 한다.<sup>36)</sup> 이 무렵 올려 진 의송 및 정문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

34) 『잡록』, 617쪽.

35) 김경숙, 「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奴良妻并産法)과 노비소송」, 『역사와 현실』 67, 2008, 254~258쪽. 한편, 이 법은 1669년 시행 후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치폐를 거듭하다, 1731년(영조 7)이 되어서야 확립된다.



향교잡록』 제2에는 황찬 등이 올린 정문에 대한 풍기군수의 題音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天祥 등이 전후에 本校를 모반한 것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으며, 모두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태영과 符同한 정황이 극도로 痛駭하니, 잡아 가두고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처치할 계획이며, 태영의 ‘非理好訟’은 더욱 심하게 간악스러울뿐더러, 여러 선비들이 정문할 무렵 많은 선비들을 誣辱하는데 힘을 남김없이 쏟았기에 잡아 가두지 않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처치할 것이다.<sup>37)</sup>

여기서 天祥은 바로 풍기향교 교노비인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교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최근에는 이태영이라는 자와 결탁하여 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풍기향교 교노비 천상과 홍해군에 거주하는 무학 이태영은 무슨 관계일까? 이들의 관계는 본장 서두에 소개한 『승정원일기』 수록 1692년 4월 27일 이태영의 격쟁 기사에서 확인된다.

本曹[병조]에서 체포하여 격쟁한 사연을 推問하니, 그의 증조부가 비첩의 자손으로 지금 풍기향교의 노비가 되었기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격쟁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송사한 바는 비단 四件事와 다름이 있으며, 자신은 嫡室인데도 열족을 위해 격쟁하여 신변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극도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sup>38)</sup>

여기서 적실은 이태영이며, 열족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풍기향교 교노비인 천상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천상은 바로 이태영 증조부의 비첩 자손이라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태영의 증조부는 李信인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상 등은 이신의 비첩 자손으로서, 만약 면천을 하지 못했다면 모두 이태영 가문

36) 『향교잡록』 제2, 628쪽.

37) 위와 동일.

38) 『승정원일기』 348책, 숙종 18년 4월 27일.

의 사노비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태영의 격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청원은 격쟁이 허용된 네 가지 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弓矢를 휴대한 채 궁궐에 난입했다는 이유로 형문 후 定配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sup>39)</sup>

이태영의 격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 李仲伯이 나섰다. 같은 해 10월 그는 상언을 올렸고, 경상감사는 順興府使를 查官으로 정하였다.<sup>40)</sup> 이중백의 상언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지만, 역시 『향교잡록』 제2에는 이 사안을 조사한 순흥부사의 報狀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어 그 대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래된 장적을 풍기에 移文해서 곧 가져다 상고해보니, 允金의 처 주질분의 신분이 혹 사비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 양녀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 교비로 기록되어 있으니 [결략] 後邑種<sup>41)</sup>[후종]도 혹 교노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 교속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 다만 李仲伯[李仲伯]이 호적이 刀擦된 한 사안은 유생들에게 책임 있다고 하여, 부사가 친히 호적을 살펴보니 ... 세 곳이 도찰된 것은 분명히 숨길 수 없으니, 天啓 元年 辛酉[1621] 이하는 주질분이 모두 사비로 書填되어 있으며, 天啓 8년 戊辰[1628]에 비로소 도찰하여 교비로 서전하였고, 崇禎 癸酉[1633]와 崇禎 己卯[1639]에도 또한 도찰했는데, 이렇게 세 곳을 도찰하여 제거하였으니 호적이 막중하기에 관에 정문하여 踏印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나, 모두 답인하지 않았습시다. 이러니 지금 마땅히 이 일의 사리를 분변하는데 있어서 의아한 단서가 없을 수 없습시다. 또 萬曆 23년 乙未[1595] 4월 일 南天連이 그 사위 이신에게 衿給한 문기는 분명합니다. 土子 신[이신]은 중백의 고조이니, 주질분이 지금 사비가 되는 것이 근거가 없지 않은데, 향교 유생의 정문 중에는 대개 말하기를 저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校’자를 도찰하여 ‘校’자를 다시 쓴 것이니 ... 주질분과 후읍종이 호적에 양녀·사비·교비로 雜書되어 있는 곳을 일일이 뒤의 별지 문건에다가 기록하였으나, 오래된 일을 부사의 알은 식견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기에, 도에서 이 문서와 別錄 및 호적을 보시고 헤아려서, 판결을 확정하는 일에 참작하여 조처하시기를 바랍니다.<sup>42)</sup>

39) 『승정원일기』 348책, 숙종 18년 6월 4일.

40) 『향교잡록』 제2, 628쪽.

41) 사내 이름 후종은 후읍종·後邑是·後邑時·後叱種 등으로도 표기된다.

42) 『향교잡록』 제2, 628~629쪽.

이 보장에서 순흥부사는 풍기군 호적 문기의 문란함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주질분은 양녀·사비·교비, 후종은 교노·교속으로 잡서되어 있으며, 세 군데에 걸쳐 도찰된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주질분의 경우 1621년 이전 호적에는 이태영·이중백 부자의 주장대로 신분이 ‘사비’로 기재되어 있다가, 1628년에는 주질분의 신분 부분에 도찰을 한 후 ‘교비’로 기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1650년 김시직 등의 상서와 이에 따른 순흥부사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sup>43)</sup> 풍기군 소장 호적의 주질분 신분 표기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t;표 3&gt; 호적의 주질분 신분 변화

연도	신분	도찰 여부	연도	신분	도찰 여부
1621년 이전	私婢		1639년	??	○
1628년	校婢	○	1642년	良女	
1630년	校婢		1645년	良女	
1633년	??	○	1648년	良女	

<표 3>처럼 주질분의 신분이 세 가지로 잡서되어 있고, 세 군데에 도찰이 이루어진 정확한 까닭은 알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보장에서는 이중백과 풍기향교 측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중백은 1642년 이후 주질분이 양녀로 기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 이전 도찰은 풍기향교 유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들이 자기 집안 소유의 주질분을 교비로 차지하기 위해 농간을 부렸다는 뜻이다. 반면 풍기향교 유생들은 저들이 고의로 원래 적혀진 ‘校’자를 도찰하여, 거기다 다시 ‘校’자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호적에 의심을 품게 하여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당시 호적서원이 주질분의 사위였다는 점을 감안한 증언으로 보인다.

---

43) 『잡록』, 613쪽.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언급된 사실은 주질분이 이신에게 衿給된 사비라는 것이다. 이중백은 소송 과정에서 分財記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595년(선조 28) 남천련이 이중백의 고조가 되는 사위 이신에게 주질분을 상속 또는 증여한 사실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태영은 격쟁에서 증조부[이신] 비첩의 자손들이 풍기향교 노비가 되었다고 하였다.<sup>44)</sup> 그렇다면 이신의 비첩은 곧 주질분이 된다. 호적과 그 간의 소송 문서에는 주질분의 남편은 보병 윤금이었다. 물론 주질분의 재혼 가능성도 있으며, ‘일천즉천’에 따라 출산을 통한 노비 증식을 위하여 소유 노비의 재혼을 권장했던 주인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확신하기는 어렵다. 또 천상 등이 교노비에서 벗어나고자, 이태영·이중백 부자와 결탁하여 윤금의 자손이 아닌, 이신의 열족으로 투탁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어찌되었던 당시 순흥부사도 호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였기에 신중한 판단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장이 올라가자 다급해 진 것은 풍기향교 유생들이었다. 이미 주질분이 교비로 확정된 상황에서, 그녀의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검토 결과 만약 사비였음이 판명된다면, 풍기향교 측은 주질분 자손들의 교노비 이탈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이에 10월 27일 풍기향교 유생 黃道明과 朴潤雨가 곧장 순흥부로 달려가 所志를 올려 爭詰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45)</sup>

결과적으로 이 소송도 풍기향교의 승리로 끝난다. 11월 5일 경상감사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이중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호적서원이 주질분의 사위였던 배송이라는 것이다. 그가 주질분의 아들 손자와 내통하고 모의했으니, 호적에 나타난 농간은 모두 배송의 짓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노비 이름의 경우 비슷한 것이 많아, 사비 주질분과 교비 주질분은 별개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후종의 소송에서 그의 간사한 정상이 모두 논파되었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60년 전의 일이고

44) 『승정원일기』 348책, 숙종 18년 4월 27일.

45) 『향교잡록』 제2, 629쪽.

당사자가 현존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을 심리하지 않는다”<sup>46)</sup>라는 受敎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sup>47)</sup>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풍기군수는 곧 바로 반노의 수괴 천상·四萬·忒成·萬生을 잡아 형문하였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중백에게 몰래 촉탁하여 모반을 시도했다는 자백을 받은 후, 決罪 및 贖錢하는 것으로 治罪함으로써 소송은 일단락된다.<sup>48)</sup>

이상과 같이 1692년 소송에서는 천상 등이 주질분을 ‘사비’라고 주장하며, 풍기향교 교노비에서 이탈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천상의 자백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천상처럼 문서위조와 소송 등을 통해 자신과 결탁한 사람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sup>49)</sup> 노비의 신분에서 당장 벗어나기 어렵다면, 대신 歇役을 부담시키는 주인을 찾기도 하였고, 이를 매개로 훗날의 신분 상승을 기약하기도 했던 것이다.

### Ⅲ. 奴婢訟을 통해 본 17세기 校奴婢 운영과 訓練都監 京砲手

#### 1. 풍기향교의 교노비 운영

46) 1687년 領議政 南九萬이 입시하여 “그리고 2대를 연이어 양인인 자는 다시 천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과 이미 6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자신이 現告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역시 法文입니다.”라고 아뢰자, 숙종은 이를 바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12월 11일) 한편, 『受敎輯錄』 권5, 刑典, 補充條條에는 康熙 丁卯[1687]의 전교를 받들어 “連二代良役事在六十年 非當身現存者 則雖無帖文 亦不得沒入公賤”라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조항은 17세기 이후의 광범위한 노비도망과 신분 모략 등으로 노비와 주인 간, 또는 노비 주인 간의 소송이 급증하게 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47) 『향교잡록』 제2, 629쪽.

48) 위와 동일.

49) 이혜정, 앞의 논문, 179쪽.

17세기 동안 주질분 자손들이 교노비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풍기향교 유생들은 풍기군·경상감영·훈련도감·병조 등을 비롯해 查官으로 임명된 타 고을 수령에게도 정문을 올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1650년 2월에는 진사 김시직, 1651년 9월에는 진사 李珣, 1654년 7월에는 유학 안세형, 1655년 3월에는 도유사 남준경, 1692년 2월에는 도유사 황찬, 같은 해 10월에는 도유사 金振一과 진사 黃琰 등이 많게는 200여 명의 유생들을 이끌고 정문을 올렸는데,<sup>50)</sup> 이들은 모두 豐基鄉案에 입록된 인물로<sup>51)</sup> 풍기향교 운영에 간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해 있었다. 이처럼 풍기군의 주요 사족들이 주축이 되어 주질분 관련 소송을 이끌었던 것은 그 만큼 풍기향교의 지역 내 위상이 높았으며, 그것의 운영에 교노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7세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풍기군 사족의 입장에서 풍기향교의 안정적인 운영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풍기향교 교노비의 규모와 구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잡록』과 『향교잡록』 제2에 수록된 소송 기록과 조선시대 교노비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풍기향교 교노비의 규모, 역할, 변모 양상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교노비는 전답과 더불어 조선시대 동안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향교가 관학 교육기관이었던 만큼, 邑格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 규모의 노비를 획급 받았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府의 향교는 30명, 大都護府·牧의 향교는 25명, 都護府의 향교는 20명, 郡縣의 향교는 각 10명을 지급한다”고<sup>52)</sup> 하였는데, 이 규정은 19세기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풍기향교도 10명의 교노비를 보장 받았지만, 실제 각

50) 『잡록』, 613~617쪽; 『향교잡록』 제2 628~629쪽.

51) 풍기향교에는 모두 4종의 豐基鄉案이 소장되어 있는데, 위의 김시직 등은 모두 16세기 후반부터 1759년까지의 향원을 수록해 놓은 향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455~476쪽.

52) 『經國大典』 권5, 刑典, 外奴婢條.

고을의 교노비 규모는 법전처럼 일률적이지 않았다. 해당 고을의 사회·경제적 사정이나, 향교의 위상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향교는 17세기 무렵까지 生産·寄進·買得·投托 등의 증식을 통해<sup>53)</sup> 규정 보다 많은 교노비를 확보하기도 했지만,<sup>54)</sup> 보유 노비가 너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교도 적지 않았다.<sup>55)</sup> 그런 가운데 풍기향교의 경우 1650년 진사 김시직 등이 상서에서 “후종과 그의 동생인 자매의 자녀는 거의 10여 인에 이르지만”<sup>56)</sup>이라고 언급한 것과 후술할 다른 교노비의 추심 기록을 감안할 때 17세기 중반 무렵 규정보다 약간 많은 교노비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공·사노비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된다. 納贖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면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서 위조 및 도망 등으로 이탈하는 노비의 수도 상당하였다. 1655년 정부에서 戶曹判書 李時昉이 “各司奴婢案에 등록된 자는 190,000구인데, 身貢을 거두는 수는 27,000구뿐입니다.”<sup>57)</sup>라고 아뢴 것은 당시 노비의 이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곧 정부에서는 奴婢推刷都監을 설치하여 누락된 노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sup>58)</sup>

그러한 가운데 17세기 이후 교노비도 감소해 갔다. 다른 사노비처럼

53)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89, 231쪽.

54) 예를 들어 17세기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 경상도 丹城鄉校는 정원의 4배인 40명 가량의 교노비를 확보하고 있었다.(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17·1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60쪽) 심지어 전라도 長興鄉校의 1639년 奴婢案에는 죽고 늙어서 빠진 241명을 제외하고 모두 491명의 노비를 확보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박진철, 「17世紀 朝鮮 長興 鄉校의 校奴婢 實態」, 『지역과 역사』 30, 2012, 295쪽)

55) 1663년(현종 4) 10월 8일 경상감사 李尙眞은 啓聞을 올려 “各邑 및 향교 가운데 노비가 극히 적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곳에各司의 노비 약간 명을 획급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며, 노비 충원을 건의하였다. 『顯宗實錄』 권7, 4년 10월 임인.

56) 『잡록』, 613쪽.

57) 『孝宗實錄』 권14, 6년 1월 壬子.

58) 노비추쇄도감의 실태에 대해서는 ‘전형택, 앞의 책, 132~143쪽’ 참조.

교노비도 도망과 문서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탈하기도 했지만, 향교가 재정 확보를 위해 팔아버리거나 속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59)</sup> 이에 정부에서는 1685년(숙종 11) “학공의 노비는 太學의 노비에 의거하여 면전을 허락하지 않는다”<sup>60)</sup>라는 전교를 내렸지만, 향교 측은 매각·속량 등을 통해 관리가 어려운 노비를 면전시켜버리고, 대신 경제적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었던 전답을 증대시켜 나갔다.<sup>61)</sup> 17세기 중반 주질분 일가의 이탈 시도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교노비들은 향교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우선 향교 소재지와 다른 他面·他邑에 거주하는 교노비들은 身貢을 바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향교 인근에 거주하는 교노비의 경우 守直·使喚을 비롯해 각종 雜役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향교 운영과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sup>62)</sup>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주질분 일가 중 권시임처럼 영천군에 거주하는 자는<sup>63)</sup> 풍기향교에 신공을 바쳤을 것이다. 반면, 향교 인근에 거주하였던 후종 등은<sup>64)</sup> 1650년 김시직 등의 상서에서처럼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교 노비는 본래 적어서 오직 이 무리들에게 의지하여, 庫 殿直·庫直으로 삼고, 食母·茶母로 삼았는데, 투숙한 후로는 校底에 살면서도 校役을 남의 일처럼 보고 모르는 사람처럼 하여, 비단 많은 선비들이 매우 비통해 할뿐더러, 同類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자들이 庫 모방하여 본받을 것이니 ...<sup>65)</sup>

즉, 17세기 무렵 풍기향교 주위에는 각종 校役을 담당하는 교노비들이 거주하며, 향교 운영과 유지에 필수적인 각종 잡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59) 1666년 정부에서는 경상도 義城縣 유생들이 향교 노비들에게 대가를 받고, 면전을 켜 준 사건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顯宗改修實錄』 권15, 7년 3월 임인.

60) 『수교집록』 권5, 형전, 公賤條.

61) 윤희면, 앞의 책, 236쪽.

62) 윤희면, 앞의 책, 236~237쪽.

63) 『잡록』, 617쪽.

64) 『훈국등록』 3책, 기사 9월 초4일.

65) 『잡록』, 613쪽.



따라서 풍기향교 유생들은 주질분과 관련된 정문에서 후종 등의 이탈로 말미암아 향교가 더욱 ‘殘廢’해졌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노비가 감소하자 향교 측은 추심과 校保 확보를 통해 노비를 충정하거나, 대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먼저 추심은 주질분 일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잘 드러난다. 풍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합심하여 후종·일난 등의 추심을 관부에 호소하였고, 이들로 말미암은 연쇄적인 이탈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풍기향교 측이 추심한 노비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잡록』에는 다음과 같은 짝막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金以燁·尹弼周 등 奴婢屬公文記 1건 【1653년 2월】

교노의 呈狀에 의거해 바로 추심한 婢 連花·實今 등을 속공하는 下帖 1건  
【1653년 6월】

교비 喜陽, 이상 문기와 報狀·書目 등 모두 3장 【1654년 2월】<sup>66)</sup>

위의 목록은 1653~1654년 동안 풍기향교 측에서 추심한 교노비의 이름과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문건들이다. 이들 역시 주질분 일가처럼 풍기향교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심되었을 것이다.

교보는 조선후기 지속적인 이탈과 관리가 어려워진 교노비를 대신하여 등장한 존재이다. 교보는 노비가 아니라 일반 양인으로 軍役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향교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보의 등장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sup>67)</sup> 풍기향교 측도 관리가 어려운 교노비를 대신하여 17세기부터 양인을 교보로 획득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66) 『잡록』, 614쪽.

67) 윤희면, 앞의 책, 239~240쪽.

己丑[1649] 10월 大成殿 守護軍 5명을 見奪하여 充軍되는 일이 있었다. 鄉中 老少가 향교에 모여 論報하였으나, 풍기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邑中에 다시 모여 사유를 갖추어 정문하였다. 題辭에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退字를 내려, 士論이 분개하였다.<sup>68)</sup>

위와 같이 풍기향교 측은 1649년 10월 이전에 이미 교보에 해당하는 守護軍 5명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大成殿 수호와 관련된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대신 군역을 면제받았다. 교보는 보통 향교 측이 관부에 합당한 사유를 갖추어 정문하면,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획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 풍기향교 측도 1717년 1월 5일 假屬 張命作을 除役하고 교보로 삼기 위해 풍기군수로부터 完文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쳤다.<sup>69)</sup> 이러한 교보는 대체로 군역보다 歇役이었다. 따라서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양인들이 향교와 결탁한 후 교보로 투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재정 악화와 군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관부에서는 풍기향교 수호군처럼 향교 투속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보들을 군액에 充軍하기도 했던 것이다.

수호군처럼 관리를 담당하는 교보 이외에도 17세기 풍기향교에는 신공을 바치는 外居奴婢처럼 ‘納木免役’하는 교보도 확인된다. 이들은 군역을 지면서 軍布를 납부하는 대신에 향교에 綿布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존재였다. 이에 1657년 2월 풍기군 사람들은 풍기향교 東西廡에 사용할 祭器 마련을 위하여, 예전처럼 ‘納木免役’을 통해 그 비용을 마련하자고 完議하기도 했던 것이다.<sup>70)</sup>

## 2. 훈련도감 투속 문제

주길분 일가와 관련된 소송은 후종의 훈련도감 경포수 입속에서 시작

---

68) 『잡록』, 610쪽.

69) 『향교잡록』 제2, 639쪽.

70) 『잡록』, 618쪽. 1670년 2월 9일에도 풍기군 사람들은 ‘納木免役’을 통해 부족한 祭器를 마련하자고 완의하였다.(『잡록』, 621쪽)

되었다.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풍기향교 유생들은 후종이 교노에서 한정·교속이 된 후에도 별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후종 등이 여전히 校役을 지면서도, 다른 노비로의 代定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훈련도감 경포수로 투속해 버렸기에 소송을 시작하였고, 주질분 일가 중 가장 먼저 후종을 추심하는데 전력을 쏟게 된다. 이는 단순히 교노비 한 명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후종으로 말미암아 교노비 이탈의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노비 후종의 훈련도감 투속은 풍기향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훈련도감은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軍營이다. 임시 기관에서 출발하였지만, 전란이 끝난 후에도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존치되어 조선후기 동안 핵심 중앙 군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훈련도감은 전란 중에 설립되어 병력의 신분 구성이 다양하였다. 사족과 양인뿐만 아니라 노비들도 입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身賤良役’을 매개로 노비 신분에서 이탈하려는 자들도 입속하여 신분적 문란이 발생하였기에<sup>71)</sup> 전란이 끝난 후 私奴 출신을 색출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전교가 내려지기도 하였다.<sup>72)</sup>

그러나 노비들과 本役을 가진 양인들의 훈련도감 입속은 근절되지 않았다. 훈련도감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묵인한 채 勤實한 군역 확보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도감군에 대한 대우가 常民 이하가 부담하는 다른 병종이나 직역보다 좋았기 때문에,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流民과 ‘遊手之輩’들이 한양으로 몰려와 앞 다투어 훈련도감에 입속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73)</sup>

71)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2, 185~186쪽.

72) 『宣祖實錄』 권167, 36년 10월 기축. “당초 도감의 군사를 급급히 모집하느라 私賤을 따지지 않고 모두 입속을 허락하였는데, 그 말류의 폐단이 이제 와서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주인을 배반한 종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가고, 橫逆의 노비들도 역시 이를 믿고 방자한 행동을 부리게 되었다. … 이제 군사가 된 私奴를 모두 찾아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사천을 군사로 삼지 말아서 그 폐단을 아주 없애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후종도 훈련도감 充軍의 맹점을 어느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종은 1653년 올린 상언에서 공초를 통해 양인 신분을 확인받은 후, 풍기군수에 의해 훈련도감 경포수로 충정되었다고 하였다.<sup>74)</sup> 하지만 이에 앞서 1650년 9월 풍기군수가 후종의 훈련도감 입속 경위를 조사한 후 경상감사에게 올린 첩정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이것 또한 교노의 역을 圖免하고자 양역에 投入한 것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거늘, 동 후종은 한량처럼 행세하여 … 항상 간사하게 술책을 사용해 전 군수를 속이고, (훈련도감에) 보고하게 해서 경포수로 충정하였으니, 痛駭한 일입니다.<sup>75)</sup>

당시 풍기군수는 관내 호적을 살펴 본 후 후종이 교노에서 이탈하고자 먼저 한량으로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650년 2월 김시직 등이 올린 상서에도 교노였던 후종이 호적서원 배송과 결탁하여 ‘한정’ 또는 ‘교속’으로 모욕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sup>76)</sup> 17세기 중반 무렵 한량·한정·교속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후종이 뚜렷한 직역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本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이 없는 한량으로 속여 훈련도감 입속을 도모하는 자들이<sup>77)</sup> 적지 않았다. 이러한 無役閑丁들이 바로 초창기 훈련도감의 1차적인 모입 대

73) 김종수,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해안, 2003, 112~113쪽.

74) 『훈국등록』 3책, 계사 9월 초4일.

75) 『잡록』, 613쪽.

76) 위와 동일.

77) 『승정원일기』 12책, 인조 4년 3월 3일, “崔峴이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水原의 砲保 權德一과 豊德에 사는 開城府의 稅鐵匠 金應男, 保人 李莫金과 高陽에 사는 포보 宋立 등은 작년 가을과 겨울 사이 東伍軍으로 편성된 뒤에 역이 없는 한량처럼 행세하여 불법으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발각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권덕일·이막금·송립 등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상 죄가 중한 자의 율로 논죄하여 장 80대를 치고 도로 本役에 소속시키겠습니다.’”.

상이었기 때문이다.<sup>78)</sup>

또 하나 풍기군수의 묵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송이 진행 될 때 훈련도감군은 일반적으로 陞戶制에 의해 충당되었다. 각 지역별로 할당된 군액에 따라 해당 고을의 지방관 책임 하에 3년마다 승호가 이루어졌다. 이때 지방관은 전투 병력만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승호군 1명 당 배정된 3명의 砲保도 갖추어 함께 보고해야 되었다.<sup>79)</sup>

이러한 승호제는 17세기 중반 훈련도감 군액 확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승호의 책임을 맡은 지방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제때 승호를 하지 못하면 감사는 推考, 수령은 파직, 색리는 徒年定配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sup>80)</sup> 아무리 훈련도감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병으로 적합한 無役者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후종처럼 한량·한정을 자칭하며 훈련도감 입속을 자원할 경우 수령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지어 진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후종은 단순히 교노에서만 벗어나기 위하여 훈련도감에 입속한 것은 아닐 것이다. 훈련도감 입속은 신분 상승의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정부는 훈련도감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공이 있거나 실력이 좋은 병력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었는데, 그 중 하나가 軍職의 제수였다. 이미 1609년(광해군 1) 훈련도감은 “근년에 都監의 모든 일이 해이해지고 개인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일이 우세하여, 연줄을 따라 청탁을 넣어 兼司僕·守門將·忠贊衛로 이속되어 간 자들이 무려 55명이나 됩니다”라며 哨軍의 이탈을 막아 주기를 아뢰었다.<sup>81)</sup> 이들이 정확히 어떠한 경로로 검사복·수문장·충찬위로 이속되었는지는 모르나, 이곳으로 이속된 자들은 西班 遞兒祿을 부여 받거나, 去官을 통해 다른 관직으로 영전될 수

78) 김종수, 앞의 책, 102쪽.

79) 『訓局事例撮要』 下, 砲保, 孝廟朝 3년 7월 25일. 훈련도감군의 충원 방법은 ‘김종수, 앞의 책, 96~114쪽’ 참조.

80) 『훈국사례촬요』 하, 포보, 仁廟朝 8년 경오 정월.

81) 『光海君日記』 권21, 1년 10월 경오.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이외에도 훈련도감은 정기적으로 中甸을 설행하여 마군 7점 이상, 보군 6점 이상의 재능 있는 군병들을 겸사복으로 승임하거나, 체아록을 주기도 하였다.<sup>82)</sup>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었기에 만약 후종과 같은 노비 출신이 훈련도감에 입속하여 군직을 제수 받게 된다면, 주인들 입장에서는 추심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652년(효종 3) 11월 1일 훈련도감 포수 安士敏은 상언을 올렸는데, 崔善莢이라는 자가 자신을 買得奴婢라고 주장하면서 가족들까지 침탈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종군한지 20년이 지났고, 그 간 신은 재주가 超等하여 겸사복에 제수되어 加資되었고, 丙子胡亂 때 南漢山城 방어에 扈從하였습니다. 또한 守門將에 제수되어 加資되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이에 훈련도감은 이 사안을 조사한 후, 실제 안사민이 사노였다 할지라도 그가 호종을 한 자이기 때문에 면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선협의 侵責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올려 윤택 받게 된다.<sup>83)</sup>

안사민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고 면천을 보장 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지만, 이 모든 것의 발단은 그가 사노 신분에서 벗어나 훈련도감에 입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풍기향교 유생들은 주질분 일가의 교노비 이탈이 확실해지자 가장 먼저 훈련도감에 입속한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17세기 동안 전개된 풍기향교 유생과 교노비 주질분 일가 간의 노비송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교노비는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기에 풍기향교 유생들은 소송을 통해 주질분 일가의 이탈을 차단

82) 『萬機要覽』軍政篇 2, 訓練都監, 試藝, 中甸.

83) 『훈국등록』3책, 기사 11월 초8일.

하였다. 안정적인 향교 운영이 사족층의 사회적 지위 유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기향교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반면에 주질분의 자손들은 교노비에서 이탈하고, 나아가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주질분 자손들의 교노비 이탈 시도는 17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 무렵 노비들은 면천·속량 등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로 말미암아 17세기 이래 신분 모칭과 노비 도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주질분 자손들의 사례와 같은 많은 노비송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교노비의 생존전략을 개인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소송의 발단이 되었던 주질분의 아들 후종은 호적서원이자 매제인 배송의 도움으로 교노에서 한량·한정으로 직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후종이 교노비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풍기향교 측은 한동안 이를 묵인하였다. 양인이 된 후에도 후종은 여전히 향교의 역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대신할 교노비 代定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종은 풍기향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훈련도감 경포수로 입속하여 한양으로 상경해 버렸다. 후종 입장에서 훈련도감 입속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공을 세우거나 무예에 재능을 보일 경우 훈련도감군은 군직으로 영전될 수 있었다. 교노비에서 일약 중간층 이상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종이 훈련도감군으로 입속되자 풍기향교의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이 대거 연명하여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였다. 결국 후종은 패소해 훈련도감 군안에서 탈하되었지만, 그는 고향인 풍기로 내려가지 않고 한양에 머문 채 교노비로 환속하지 않았다.

후종의 조카 일난도 교노였지만, 이모부 배송의 도움으로 외숙부 후종과 함께 양인이 되었다. 그는 외조부 윤금이 보병에서 老除되던 시기에 맞추어 양인으로 승격한 후, 외조부의 군역을 代定한 것으로 보인다. 일

난도 후종처럼 양인이 된 후 향교의 역을 부담하였으며, 자신을 대리할 교노비 代定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이후 후종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으로써, 일난도 추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군적에서 탈하되고 만다. 한편, 일난의 생질 권시임은 외가 친척들의 잇따른 패소로 교노비로 환속될 처지가 되자, 의송을 올려 자신을 ‘노양처소생’이라고 주장하였다. 17세기 중반 군역 확보를 위해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던 것에 맞추어 의송을 올렸으나, 그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상·사만·말성·만생은 교노비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주질분이 교노비가 아니라, 이태영 집안의 사노비이며, 자신들은 그 집안의 얼족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일으켰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질분의 자손들은 원칙적으로 사노비가 되어 교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상 등이 일으킨 소송도 풍기향교 유생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패하였으며, 교노비에서 이탈하고자 이태영과 결탁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천상 등은 자신과 결탁한 사람을 주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소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교노비에서 이탈한 후, 이를 매개로 신분 상승을 기약하는 전략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訓局謄錄』

『經國大典』

『受教輯錄』

『萬機要覽』

『訓局事例撮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김경숙, 「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奴良妻并産法)과 노비소송」, 『역사와 현실』 67, 2008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17·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김중수,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해안, 2003

박진철, 「17世紀 朝鮮 長興 鄉校의 校奴婢 實態」, 『지역과 역사』 30, 2012

심재우, 「『訓局謄錄』 인조~영조 대 上言에 대한 연구」, 『장서각』 33, 2015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89

이혜정,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1578년 노비결송입안(奴婢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2015

전경목,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전북사학』 40, 2012

\_\_\_\_\_, 「조선후기 노비의 속량과 생존전략」, 『남도민속연구』 26, 2013

전형택,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_\_\_\_\_,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1996년 가을호, 1996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2

한효정, 「소송을 통해 본 17세기 노비횡탈 양상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 ‘안심(安心)’자녀 소송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7, 2013

Abstract

## A Number of Social Aspects Shown Through a Slave litigation in Gyonobi(校奴婢) in 17th Century

Yi, Gwang-woo

This thesis has taken a look at a number of social aspects based on litigation of slaves that was undertaken a family of Gyonobi (slaves tied to school) and a Confucian scholar of Punggi Hyanggyo (public school in Punggi) in Gyeongsang-do during the 17th century.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were descendents of Joojilbun, a Gyobi. Following the principles of the Joseon Dynasty in 'Ilcheonchikcheon (once a slave, forever slave)' and 'Slave Belonging to Mother Law' during the Joseon Dynasty, descendents of Joojilbun had to be Gyonobi s of Punggi Hyanggyo, but they conspired with a Eupri (local government employee) to morok (record of falsified fact) as a wanderer. Furthermore, they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Gyonobi by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for a good-hearted person, such as, shooter or infantry of Hunryeondogam (military in capital area) or named themselves as an illegitimate child of a well-established clan or child of a slave wife, but they failed in their endeavor due to the defeat in the litigation against the Confucian scholars of Punggi Hyanggyo. Gyonobi belongs to Hyanggyo to provide personal and property resources that they were indispensable beings i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establishment. In addition, Hyanggyo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n important rural community organization where clans were active. Therefore, these Confucian scholars of Punggi Hyanggyo cut off the breaking away of Gyonobi in the Joojilbun clan through litigation in a way of seeking for stable operation of Hyanggyo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noble clans. In the meantime, those Confucian scholars of Punggi Hyanggyo focused the most in the litigation in the return of Whojong who enlisted as a shooter of Hunryeondogam and a son of Joojilbun. If Whojong would have gotten a higher social status after assigning to a military position of Cheajik (a position with government salary of some sort) with Hunryeondogam as his stepping stone, they thought it would be more difficult to prevent the series of deviation by the clan that they petitioned for Whojong's return as their first priority.

**keywords**

Gyonobi, Punggi Hyanggyo, Hunryeondogam, litigation of slaves, Slave Belonging to Mother Law

